

AUTHOR 심창섭 (Chang Seop Shim)

TITLE 리베르틴파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입장(4)
(An Evaluation of the Calvin's Position
on the Libertines Sect (4))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56 no.3 (Autumn, 1989):90-113

리베르틴파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입장 (IV)

沈 昌 燮
(역사신학)

<목 차>

I. 서 론	V. 리베르틴의 범신론 교리
II. 리베르틴파의 정의	VI. 기독교론
III. 리베르틴파와 초대교회 이단들	VII. 윤 리
IV. 성경관	VIII. 결 론

IV. 성경관

1. 서 론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적어도 성경연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올바른 성경적 교의를 터득할리 만무하다.”¹⁾고 단언한다. 칼빈에게는 하나님과 우리들 인간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란 성경과 연관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실제로, 그의 대작 「기독교강요」는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기독교 교의를 발견하는데 전적으로 진력하고 있다. 칼빈은 ‘독자에게 대한 서문’에서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제까지 이 책 속에서 내가 견지해온 목적이라고 하면, 신성한 신학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희망하는 자들을 준비시키코가 르치기 위한 것으로써, 그들이 아무런 장애도 느끼지 않고 성경에 쉽게 도달하여 그 말씀의 심연 속으로 더욱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 Inst. I.6.2, p.72(CO II, 54: nec quemquam posse vel minimum gustum rectae sanaeque doctrinae percipere, nisi qui scripturae fuerit discipulus).

이다.”²⁾ 이와 관련하여 Wilhelm Niesel은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러므로 칼빈신학의 목적은 ‘인간철학’(philosophia humana)을 개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인간들에게 주신 ‘기독교철학’(philosophia christiana)을 설명하는데 있는듯이 보인다.”³⁾

칼빈에게 있어서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유일한 길잡이란 sola scriptura이다. 이 길잡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그것이 교회이든지 아니면 전통이라 하더라도 검토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칼빈이 로마카톨릭 교회와 급진파 세력들과 맞서 싸운 싸움들은 sola scriptura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교회와 전통의 이천년 역사는 바로 이 신앙의 규범(regula fidei)을 가지고 다시 고찰하여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⁴⁾ 제세베파나 리베르틴파와 같은 급진파 세력들 역시 성경을 불신한 까닭에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⁵⁾

성경에 대한 칼빈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그가 왜 것처럼 리베르틴파가 제기한 성경관에 대해 발벗고 거부하고 나섰는지는 그리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리베르틴파에 대한 반론」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성경의 주제에 관해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칼빈의 설명은 리베르틴파의 언어 스타일과 일반적인 행동양식을 다루는데서 시작한다. 7장과 8장에서 칼빈은 리베르틴파를 자기들의 독특한 성

2) Inst. To the reader, p.4(CO II, 1: Porro hoc mihi in isto labore propositum fuit, sacrae theologiae candidos ad divini verbi lectionem ita praeparare et instruere, ut et facilem ad eam aditum habere, et inoffenso in ea gradu pergere queant).

3) Niesel, 1980, p.24.

4) 로마카톨릭 교회에서는 신자들을 통치하는 궁극적인 권위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혹은 전통)와 성경(교회를 성경의 권위 위에 놓는 한에서 만이 해당되지만) 이 두가지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칼빈은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권위는 오직 sola scriptura에만 있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에 대한 주요한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라. Calvin's Reply to Sadolet in Cavil: Theological Treatises, tr. by Reid, 1954, pp.230-237; 241; 255. 또한 John C. Olin's introduction in his A Reformation Debate, 1979, pp.29-21.

5) 제세베파의 성경관에 대해서는 Balke, p.98f 와 pp.309-320을 참고하라.

경관에 기저를 두고 행동하는, 이중적인 언행(言行)그룹으로 소개한다. 리베르틴파는 전적으로 성경이 자신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칼빈은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편리하도록 성경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8 장에서는 성경에서 구체화된 대로 성경,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서 벗어난 사항들에 대해 진술한다. 9 장과 10 장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리베르틴파의 신성모독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리베르틴파에게서 보여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성경과는 대조적으로 성령에 대한 지나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반론」의 이 네개의 장(章)에서 칼빈이 보이고자 한 목적은 성경 자체를 고찰함으로써 성경과 성령에 대한 리베르틴파의 그릇된 이해를 입증하는데 있다.

본장에서는 먼저 리베르틴파 자체의 특성에 대해 칼빈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리베르틴파의 해석학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들의 성경관과 성령관에 대한 칼빈의 설명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단으로서의 리베르틴파와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고한 신뢰자로서의 칼빈을 보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2. 리베르틴파의 이중적(二重的) 본성

「반론」 7 장과 8 장에서 리베르틴파는 변덕스럽고 부정직한 자들로 묘사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혹은 자신들이 무엇을 확신하고 또는 어떤 것을 부인하는지에 대해 여타 사람들이 전혀 판단할 수 없게끔 자신들의 목적을 가장하기 위해서”⁶⁾ 그들 나름대로 주로 사용하는 은어(jargon)를 가지고 있다. 칼빈이 주목한 바대로, 리베르틴파의 목적은 언어의 고상한 방법을 이용하여 그 청중들을 혼동시켜 미혹하는데 있다. 그들의 언어 스타일이 단순한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지만, 실상은 칼빈이 비난하고 있듯이 그들의 정체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6) TAL, p. 213(CO VII, 168 : mais ilz en deguisent tellement la signification, que iamais on ne sait quelle est le subiect de la matiere dont ilz parlent, ne que c'est qu'ilz veulent affermar ou nier).

리베르틴파의 언어스타일에 대한 칼빈의 주된 비판은, 그가 고찰한 바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들 언어의 현혹성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란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기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언어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서 이다.”⁷⁾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실례는 성경 속에 나타난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엄위로우신(majesty) 분이지만, “그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보잘 것 없는 우리들에게 맞추어서 언어의 세련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셨다.”⁸⁾ 이러한 사실을 실정해 볼 때, 말로 현혹시키는 것이란 사악함은 물론이거니와 언어가 단순하고도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데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뜻과도 반대되는 것이다.⁹⁾ 이런 점에서 리베르틴파의 문제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결여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칼빈은 리베르틴파가 그들 언어의 현혹성을 그들의 행동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언어와 행위에 있어서 리베르틴파는 습관적으로 남을 혼동시키며 남을 속인다. 이러한 터무니 없는 태도는, 칼빈이 설명하고 있듯이 “그들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독스러울만큼 고수하고 있다.”¹⁰⁾라는 사실에

7) TAL, p. 214(CO VII, 169 : Car la langue est creée de Dieu pour exprimer la cogitation, à ce que nous pussions communiquer ensemble ; Inst. II, 8, 47—48, pp. 411—413(CO III, 300—301)과 비교하라.

8) TAL, p. 215(CO, VII, 169).

9) Inst. III, 20, 33, pp. 896—897(CO II, 659—660)을 참조하라. 기도에 관한 주제에 대해, 칼빈은 언어란 항상 “전체 회중이 널리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중기도이든 혹은 개인기도이든 간에 마음에도 없는 말은 필시 하나님을 노여울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여 언급하고 있다[Inst. II, 8, 47, pp. 411—412(CO II, 300—301)]. 일반적으로, 언어란 법정증언이나 사람(私談)에서나 통용되는 거짓 비난이나 갖은 소문 따위에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진실을 선언하는 언어는 반드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좋은 평판과 그들의 권익에” 이바지 하는 것이어야 한다.

10) TAL, p. 216(CO VII, 170 : ilz prennent une grand gloire en cela, et s'en tiennent bien fiers).

서도 자세히 엿볼 수 있다. 칼빈의 설명에 의하면 리베르틴파는 자기들의 모순성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중성(duplicity)에도 매우 만족한 듯 보인다. 이러한 리베르틴파의 태도와 행동에 반대하여 칼빈은 순수함과 정직을 미덕으로 역설한다. “순수함(simplicity)은 우리가 천거할 수 있는 최상의 덕목이다.”¹¹⁾

또 다른 차원에서 리베르틴파의 이러한 현혹성은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성경에 의거하여 정당하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리베르틴파가 성경에서 인용하는 일정한 성경구절들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모두가 기만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칼빈은 연관짓는다. 칼빈에 따르면, 리베르틴파는 하나님을 조소하며 흉내내는 자로 만들었고, 그리스도는 수수께끼나 말하는 사람 정도로 바꾸어 버렸다. 그들은 시편 2:4(“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들을 희생시켜 하늘에서 즐기고 앉아계신다는 그들의 확신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오래 참으시는 중에 죄인들에 대한 처벌을 연기하고 계시는데도, “이들 악한들은 하나님을 세상을 기만하려는 목적에서 흉내내며 조롱이나 하는 그런 조소자로 생각하고 있다.”¹²⁾고 칼빈은 설명한다.

리베르틴파는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과 동일한 범주 속에 포함시킨다. 그리스도가 이해하기 힘든 여러가지 비유로 말한 까닭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청중들을 당혹시킴으로써 스스로 즐기고 있었다고 리베르틴파는 주장한다. 물론 칼빈은 그 비유들이 “설명을 요하는 것들”¹³⁾임을 목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시된 바대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리베르틴파가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음에 있다고 칼빈은 논박한다. 칼빈의 주장처럼 그 증거는 분명히 성경 안에 명시되어 있다.

11) TAL, p. 216(CO VII, 170 : Car puis que c'est la principale vertu que nous devons avoir en recommandation, que Simplicité).

12) TAL, p. 217(CO VII, 171 : Ces villains prement cela pour faire Dieu un gandiseur, qui se contrefec pour abuser le monde).

13) TAL, p. 218(CO VII, 171).

칼빈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진실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칼빈의 확신한 바대로 하나님의 정직하심은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사 45:19)”¹⁴⁾라는 말씀 속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이사야서의 이 구절을 인용한 후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도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를 헛되이 부르지 않으실 것을 엄숙히 선포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까닭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소하여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쉽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서는) 자기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희망은 결코 밀도끝도 없이 헛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실 것이다.¹⁵⁾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애매모호하거나, 또는 거짓된 것은 어느 것도 가르치지 않으셨다.”¹⁶⁾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나타내주는 훌륭한 예가 된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빛이신 까닭에 빛을 비추려 오신 것이지 어둡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대로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말 4:2)¹⁷⁾이시다. 이 명칭은, 칼빈의 주석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대로, “그리스도의 독특한 직무가 세

14) TAL, p. 218(CO VII, 171—172 : bu'il n'avoit point parlé en cachette, ne par dessoubz terre : qu, il n'avoit point commandé en vain au peuple d'Israel, de le chercher(Isa 45 : 19)).

15) Comm. Isa, 45 : 19(CO XXXVII, 144—145 : Testatur autem se non frustra nos invitare, etiamsi differat anzilium suum : certissimum enim esse quod promisit. Ut aperte docuit quo nobis confugiendum, in quo conuiescendum esset : ita re ipsa comprobaturum, non inanem fuisse eorum spem qui in eius verbo acquieverunt).

16) Comm. Isa. 45 : 19(CO XXXVII, 145).

17) TAL, p. 208(CO VII, 172).

상을 밝게 비추는 것”인 까닭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창세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밝게 비추이는 참빛”¹⁸⁾인 까닭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본성의 명료성과 정직성을 밝힌 후, 한 걸음 나아가 복음, 혹은 하나님 말씀의 명약관화함을 주장한다. 실제로 칼빈은, “명확하면서도 단순하며 확실하고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한 교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에 자랑스러워 해야 하며, 따라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은 자신의 간악함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껄껄하고 못된 배일을 이용하고 있음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¹⁹⁾고 주장한다. 칼빈이 지적하듯이, 비유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접적인 방식은 논의의 주제를 혼동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실한 자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새겨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더욱 더 윤택하게 해준다.”²⁰⁾ 더욱이, 여러 비유들에게서 나타나는 난점은 그 비유들이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청중들이 강박한 마음을 소지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물론 빈칼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는 모호하여 이해가 곤란하다”는 점은 시인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점은 “무디고 무딘 우리의 이해 정도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성경 자체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장님, 혹은 시력이 나쁜 사람은 태양을 닮았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는 태양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다.”²¹⁾라고 칼빈은 주장한다.

18) Comm. Mal. 4 : 2(CO XLIV, 490).

19) TAL, p. 219(CO VII, 172 : C'est qu'il se vante d'avoir une doctrine claire, pure, certaine, facile à tout le monde, distant, que celui qui use d'obscurité, emprunte un voile de honte, pour couvrir sa turpitude).

20) TAL, p. 219(CO VII, 172 : mais plussost pour mieux imprimer sa doctrine aux cueurs des fideles, et luy donner plus de lustre).

21) Comm. Isa. 45 : 19(CO XXXVII, 145-146 : Hoc quidem verum est, sed heetudini sensus nostri et tarditati, non scripturae imputandum : nec enim accusandus est sol a caecis ant luscitosis, quod eum intueri non possint).

따라서, 문제는 예수의 비유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칼빈이 강조하고 있듯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²²⁾ 칼빈이 주장하듯이, 복음의 명료성에 대한 모든 무지함은 반드시 복음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배일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 복음이란 신앙인들이 확고부동하게 완전히 신뢰하는 진리의 표현(*manifestatione veritatis*)²³⁾이다. 제아무리 리베르틴파가 교묘하게 성경의 진실성을 왜곡시키려는 그들의 저의에 성경의 진리를 교묘하게 갖다 붙인다고 해도 이에 대한 칼빈의 결론은 명확하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환한 대낮 같은 조명 아래서도 아직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들은... 분명 사탄에 의해 눈이 먼 것이 틀림 없다.”²⁴⁾

성경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명료하면서도 틀림이 없다. 즉,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명확한 표현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의 의롭고도 진실된 본성에서 확증된다. 따라서 칼빈은 이렇게 권고한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배일들을 다 벗어 버려라. 이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다. 그리고 오로지 순수하고 명확한 복음만을 가르치도록 하자. 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니, 오직 불신앙 때문에 그 마음이 혼미한 자들에게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고후 4 : 3)”²⁵⁾ 칼빈은 고린도후서의 본 구절을 언급한 후, 제차 위의 사실을 언급한다: “결국, 불신자들의 무지몽매함은 복음의 명료함을 절대로 손상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태양은 결코 그 빛의 찬연함이 감소하지 않은 까닭에도 불구하고 소경된 자들은 결코 그 빛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²⁶⁾

22) TAL, p. 219(CO VII, 172).

23) Comm. II Cor 4 : 2(CO I, 49).

24) TAL, p. 218(CO VII, 172).

25) TAL, p. 219(CO VII, 172-173 : qu'ilz facent comme saint Paul : qu'ilz ostent et reiectent tousvoiles, qui sont signes de honte, et nous enseignent un Evangile pur et net, et qui ne soit difficile à entendre, sinon à ceux qui seront alienez de leur sens par incredulité).

26) Comm. II Cor. 4 : 4(CO I, 51).

3. 말씀과 성령

「반론」 8장에서 칼빈은 리베르티파를 설명하면서, 그들은 복음의 명확성에 대해 전혀 무지몽매할 뿐더러 오히려 악마적이면서도 기만적인 자신들의 음모를 옹호하기 위해 이러한 복음의 성질을 이용하려고 드는 자들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9장에서는 이보다 한결을 더 나아가서, 칼빈은 리베르티파를 공격하면서 그들의 성경교의를 비난한다. 칼빈이 지적하고 있는바 성경에 관한 리베르티파 해석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성경의 자연스러운 의미를 살펴볼 때, 그 성경은 그저 죽은 문자에 지나지 않으며 오로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일 따름이다. 그래서 리베르티파에서는 생명을 부여하는 성령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내 팽개쳐 버린다.”²⁷⁾ 리베르티파는 성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왜곡시켜 자기들의 유익에 편리한대로 사용한다. 칼빈은 이들이 그처럼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한 의미를 고수하지 말고, 알레고리화 해석방법을 이용하여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를 끄집어 내야 한다. 둘째로……성경에 기록된 그 자체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잠자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심사숙고하여 새로운 계시가 있는지 찾아 보아야만 한다.²⁸⁾

27) TAL, p. 222(CO VII, 174 : que l'Écriture, prise en son sens naturel, ne'st que lettre morte, et qui occist : et pourtant que il la faut laisser pour venir à l'Esprit vivifiant).

28) TAL, p. 222(CO VII 174 : c'est premièrement qu'on ne se tienne point au simple sens de l'Écriture, mais qu'on s'enioie par expositions allegoriques : secondement, qu'on ne se arrête pas à ce qui est escrit, pour y acquiescer du tout, mais qu'on specule plus haut, et qu'on cherche revelations nouvelles).

지금 칼빈이 비난하고 있는, 리베르티파의 성경에 대한 알레고리화 작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리스길리안파(Priscillianists)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듯하다. 칼빈은 앞서 이단들의 역사를 추적하는 가운데 프리스길리안파의 알레고리 작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또 다시 칼빈은 이들을 논의의 범주에 포함시켜 리베르티파와 연관짓고, 이들은 주로 이중적인 언어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Farley의 주장대로, 칼빈이 몬타니스트의 여성예언자인 프리스길라(Priscilla)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꽤 주목할만한 흥미로운 사실이다.²⁹⁾ 아마도 이러한 사실은 리베르티파와 몬타누스주의자들이 똑같이 영적인 면에 뿌리를 두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듯이 보인다. 물론 몬타누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계시 외적인 예언을 찾고 성경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³⁰⁾ 몬타누스주의자들의 성경해석은 예언적인 엑스타시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계시록 12:14을 해석하는 데에도, 새예루살렘을 소아시아에 있는 페파자 프리기아(Pepaza Frigia)로 파악하였다.³¹⁾

그러나, 몬타누스의 여러 원문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성경을 알레고리화한 작업은 단 한군데도 드러나지 않는다.³²⁾ 비록 리베르티파와 몬타누스주의자들(혹은, 프리스길리안파)에게서 영적인 특정 부분에서 공통적인 면모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칼빈이 여기에서 언급한 프리스길리안파는 분명 몬타니스트 여성 예언자 프리스길라의 추종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칼빈이 인용한 프리스길리안(Priscillian)의 인도로 4세기 무렵 스페인에서 설립된 한 그룹에 속한 무리들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프리스길리안(Priscillian)은 교회에 의해서 파문당한 아빌라(Avila)의 감독이었다. 그는 세례를 부인하고 가현적(假顯的) 생활에 의지하도록 신자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성경에 대한 특수한 영적

29) TAL, p. 198, n. 28을 보라.

30) Eusebius, *Ecc. Hist.* (NPNF. 1, 231—233; MPG XX, 465—473).

31) *Realencyklopadie für Protestantische Theologie und Kirche*, 1903, vol. 13, pp. 420—423.

연구를 강조하였으며 비학(秘學)에도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다.³²⁾

칼빈이 언급한 인물이 바로 이 아빌라의 프리스길리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가지 자료를 인용해 입증할 수 있다. 그 첫번째 자료로, 어거스틴이 프리스길리안파를 비난하라는 콘센티우스(Concentius)의 요구에 대해 답한 내용을 들 수 있다.³⁴⁾

콘센티우스는 5세기 경 프리스길리안 이단들과 사상논쟁을 벌인 스페인의 신학자였다. 그는 당시에 특별히 거짓과 부정으로 자신들의 교의를 숨기는 프리스길리안파의 작태에 맞서 그들을 비판하도록 어거스틴에게 특별히 부탁하였다. 어거스틴은 콘센티우스의 요청에 응답하여, 먼저 이 프리스길리안파가 다른 여타 이단들 보다 더욱 해악스러운 집단이라고 규정하였고 또한 이들은 범신론사상 숭배자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그 본성이나 실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믿었다.³⁵⁾

리베르틴파와 프리스길리안파 사이에 밀접한 유사성은 프리스길리안주의자들이 이중적 생각 뒤로 숨고자 하는 경향에 대해 칼빈이 혹평한 사실에서 더욱 상세히 드러난다:

프리스길리안주의자들은 늘상, 아니면 적어도 최고도적인 면에서 그들이 목적하는바 자기들의 진리를 숨기고자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교리인양 거짓으로 교리를 말한다. 또한, 그 마음 속에는 반드시 진리를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그 생각을 끝이 끝대로 말할 필요없이 거짓을 말한다해도 그것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고 프리스길리안주의자들이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정당하게 평가해 볼 때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엄청난 악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³⁶⁾

32) Bonwetsch, 1914, pp. 3—32 를 보라.

33) Chadwick, 1976, p. 8.

34) Augustine, *Con. Mend.* (NPNF III, 481—500; MPL XL 518—547).

35) Augustine, *Con. Mend.* (NPNF III, 484; MPL XL. 523; anima sit pars Dei, et ejusdem cujus est ille natural atque substantiae).

36) Augustine, *CON. MEND.* (NPNF, 482; MPL XL, 519: Ipsi enim sali, vel certe maxime ipsi reperiunter, ad occultandam suam quam

프리스길리안파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칼빈이 지금 비난하는 리베르틴파의 성격에 관한 입장과 너무나도 놀라운만큼 일치한다.³⁷⁾ 상기한 사실로 미루어 짐작컨대, 칼빈의 마음 속에서는 몬타누스의 추종자들 보다는 오히려 어거스틴이 자신의 논문 속에서 비난하였던 바로 그 프리스길리안파(주의자들)를 유념했던 것이 거의 틀림없다.

프리스길리안주의자들이 작성한 현존하는 원문에서는 이처럼 프리스길리안파와 리베르틴파 사이에 칼빈이 관계짓는 연계성에 관하여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Priscillian: Tractatus」에 사는 프리스길리안파의 교의에 대해 상술한 열한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논문이 특별히 주목거리이다. 다섯번째 논문(Tractatus Genesis)에서는 구약성경의 알레고리화에 대한 주장을 옹호하고 있고, 역시 여섯번째 논문(Tractatus Exodi)에서도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똑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³⁸⁾ 여기서 프리스길리안파는 오리겐(Origen)의 선례를 좇고 있다고 보는 Chadwick의 견해는 프리스길리안파의 알레고리화 하는 경향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프리스길리안주의자들이 설명한 주석을 보면, 종종 숫자(numbers)와 동물들이 심오한 알레고리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힐라리(Hilary)에 기초를 둔 오리겐학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시편 속에 나타난 여러 시들의 배열순서는, 분명 힐라리에게 기원을 둔 일종의 상징적인(viii, pp. 87—88) 교의이다. 오리겐에 따르면, 원래 시편의 여러 시들은 장절이 매겨지지 않았고 단지 에스라에 의해 한권의 시편으로만 한데 엮여져 있었으며 그후 영

putant veritatem, dogmatizare mendacium: atque hoc tam magnum malum ideo justum existimare, quia dicunt in corde retinendum esse quod verum est; ore autem ad alienos proferre falsum, nullum esse peccatum).

37) TAL, pp. 216—225 (CO VII, 170—176).

38) CSEL, XVIII, 65—68; 69—81.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Chadwick, pp. 62—81 을 보라.

적인 의미에 따라서 70인의 헬라어 구약성경 번역가들에 의해 장절을 취했다고 힐라리는 설명하였다.³⁹⁾

따라서 앞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칼빈이 언급한 프리스길리안 주의자들이 아빌라의 프리스길리안 지도 아래 스페인에서 태동된 무리를 지칭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아마도 이들은 어거스틴이 「contra Mendacium」에서 거짓말장이들로 묘사한 이단무리들과 동일한 그룹으로 보여진다.

칼빈은 또한 리베르티파를 교황제 신봉자(papist)들과 관련시키면서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리베르티파와 교황제 신봉자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다음의 원리를 주장한다: 즉 그들은 성경을 알레고리화시켜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지혜보다 훨씬 더 나오면서도 완전한 지혜를 열망한다. 따라서 이 둘 모두는 일종의 은닉으로써 ‘의문은 죽이는 것’(고후 3:6)이라는 사도바울의 말씀에 자신의 주장을 호소한다.”⁴⁰⁾ 여기에서 칼빈은 한편으로는 로마 카톨릭을 혹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리베르티파를 혹평하고 있다. 칼빈에게는 이 두그룹이 전혀 성경의 단순한 진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대로 성경에서 제시하지도 않은 자료에 대한 의미와 상(像)만을 추론하는 자들로 보여진다. 비록 「기독교강요」에서는 교황제 신봉자들의 알레고리적 제방법들에 관한 특정한 성경구절들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의 주석에서는 다양한 여러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다.⁴¹⁾ 일례로, 칼빈은 시편 24:9(“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다”)에 대한 교황제 신봉자들의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들을 공박하고 있다:

39) Chadwick, p. 74.

40) TAL, p. 222(CO VII, 174: neantmoins tous les deux ont ce principe commun ensemble, de transfigurer l'Escriture en allegorie, et d'affecter une sagesse meilleure et plus parfaite, que celle que nous y avons. Et tous deux d'un accord prennent pour couleur ceste sentence de saint Paul, que la lettre occist).

41) Vander Kolk, 1951, pp. 117-135 을 참조하라.

이 구절의 자연스런 의미면에서 볼 때, 교황제 신봉자들이 그리스도를 단지 출입의 허가를 하기 위해 지옥문 앞에서 계신 분으로 소개함으로써 자신들의 조야하고도 어리석은 생각을 확신시키기 위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거짓으로 이 구절을 오용하고 있는지를 능히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냉정한 자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루어야 함은 물론, 아울러 그 하나님 말씀을 와전시키어 농락하며 불경건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고 있는 교황제 신봉자들을 혐오해야 함도 터득해야 할 것이다.⁴²⁾

칼빈에게는, 성경이 성경 그 자체에 의거하며 결코 어떠한 해석도, 특별히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명료한 기록이라는 사실임에 의심할 바 없다. 칼빈은 그의 「반론」에서도 성경을 알레고리화하는 작업은 그 모두가 “성경을 엄청나게 와전(訛轉)”⁴³⁾시키는 것이라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칼빈은 성경의 알레고리화 작업을 논박하는 가운데 이제 그 관심을 돌려 고린도후서(3:6)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한다. 그의 주장대로 죽이는 “의문”(儀文)은 복음을 가리키는 “영”(靈)에 대한 반대적 의미로써 율법, 혹은 구약성경을 지칭한다. 칼빈은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함되어 있고 그가 말씀에 활력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통해 그 말씀으로 우리들 각 사람 마음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까닭에 바울은 그 복음을 ‘신령한’ 가르침이라고 부르고 있다.”⁴⁴⁾고 설명한다. 칼빈은 그의 고린도서주석에서도, “바울은 여기에서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열쇠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을

42) Comm. Ps, 24:7(CO XXXI, 249: Quan vero stulte ac turpiter hoc loco abusi sint papistae ad crassa ludibra quibus Christum ad inferos penetrantem inducunt, eo genuino verborum sensu plus satis patet. Hinc vero discamus sanctum Dei verbum sobrie reverenterque tractare, ac papistas detestari, qui in eo pervertendo nefariis suis sacrilegiis quasi impuee ludunt).

43) TAL, p. 222(CO VII, 174).

44) TAL, p. 223(CO VII, 174).

뿐, 그 외의 다른 의도는 전연 없다.”⁴⁵⁾라고 결론짓는데 이제까지 이 성경구절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해는 오리겐(Origen)에 의해 촉진되었는 바, 그는 “의문”을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해석한 반면 “영”은 성경의 영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그와 같은 결론은 사도바울이 의도한 바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본다. 이러한 차이는 성경을 두 가지 상이한 방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을 복음에 비유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또한 칼빈에게 있어서 “의문” 또는 율법이란 사람들의 심령에 감화를 주지 못하여 생명력을 상실한 그야말로 표면적인 설교를 의미한다. 칼빈은 “영”을 “그 본질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살전 2:13) 일종의 생명력 있는 가르침”⁴⁶⁾이란 뜻으로 해석한다. 그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그러므로 의문이란 말은 문자적인 설교, 즉 의미가 죽어버려 비효과적인 그야말로 오로지 사람의 귀로만 감지되는 설교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이란 말은 신령한 가르침, 즉 단순히 입으로 내뱉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각 사람의 영혼에 살아있는 느낌으로 다가가는 신령한 가르침을 의미한다.⁴⁷⁾

이와 같은 「반론」에서 칼빈은 “율법이 문자적으로만 남아 있고, 우리가 율법 안에서 죄의 고발만을 발견하는 한 의문(율법)은 죽이는 것이다.”⁴⁸⁾라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45) Comm. II Cor 3:6(CO L. 39: clam a Paulo tradi tradi scripturae per allegorias exponendae: quoniam tamen hoc sit ab eius mente alienissimum).

46) Comm. II Cor 3:6(CO L. 39: per spiritum vero doctrinam vivam, quae efficaciter operetur in animis per gratiam spiritus).

47) Comm. II Cor 3:6(CO L. 39: Litera ergo perinde valet ac literalis praedicatio, hoc est, mortua et ineffica, quae tantum auribus percipiuntur. Spiritus autem est doctrina spiritualis, hoc est, qual non ore tantum pronuntiatur, sed efficaciter in animas usque vivo sensu penetrat).

48) TAL, p. 223(CO VII, 174).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란 결코 의심할 바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성경은 오로지 그것의 가르침과 그 수용만이 있을 따름이지 결코 폐기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문자적인 것으로 되는 경우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완전히 배제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의문”이란 “그 자체가 전혀 쓸모가 없다.”⁴⁹⁾ 달리 표현해 보자면, 칼빈이 상술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비록 율법에 고귀한 명성을 부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복음과 비교해 불만한 어둠의 그 무엇이 아니다.”⁵⁰⁾ 오히려 칼빈에게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용은 “생명을 부여하는” 복음의 전파와 그 수용으로써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으며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다.”⁵¹⁾

따라서 칼빈에게는, 리베르틴파가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장을 개진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리베르틴파가 자기들의 확신을 옹호하기 위해 인용하는 고린도 후서의 구절은 그 자체로 케케묵고 폐기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지 성경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주장하고 있듯이, 이 구절의 말씀은 “더 이상 꼬집어 낼 수 없는 액면 그대로의 단순한 의미”⁵²⁾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리베르틴파의 알레고리적 성향에 대한 칼빈의 반대는 성경의 권위에 관한 그의 교의에 근거한다. 분명하고도 명약관화한 성경의 의미를 알레고리화 한다는 것은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의 모든 권위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칼빈은 갈라디아서를 주석하는 가운데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 진정한 의미로부터 왜곡시키고 있는” 오리겐과 그외의 여타 사람들을 거부하

49) Comm Rom 2:29(CO XLIX. 45)

50) Comm. II Cor 3:7(CO L. 41: quod legem Deus mango honore dignatus est: quae tamen nihil ad evangelium).

51) TAL, p. 223(CO VII, 174: Tractatus Omnes 511: Evangelium vivificare, quod afferat gratiam Christi, per quam in nobis factum edit at salutem).

52) TAL, p. 223(CO VII, 174).

면서 이러한 행위는 의심할 나위없이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켜 이것을 읽음으로써 얻어지는 진정한 이득을 제거해 버리기 위한 사탄의 간계임이 틀림없다”⁵³⁾고 말하고 있다.

리베르틴파에서는 성경을 수 많은 영적 의미를 간직한 비옥한 토양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결국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 칼빈이 성경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때에는 대체로 두가지 점에서 그 근거를 갖고 있다. 그 첫번째로 하나님 스스로가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기원은 자연 신적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성경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생명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오로지 그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간주할 때에야 만이 신자들 가운데 온전한 권위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⁵⁴⁾ 또한, 비록 성경 안에 기록된 실제의 내용은 성경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각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전달하시는 것이다.⁵⁵⁾ 그러므로 칼빈의 해석학에 있어서 한가지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석할 때는 성경저자들의 정신 내지는 생각을 반드시 참작해야만 하거나, 아니면 성경저자가 성경을 기술할 당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간취하여 이해하여야만 한다⁵⁶⁾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해석학적 두 가지 원칙,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및 성경저자의 의도라는 두 원칙을 배제해 버린 알레고리라는가, 혹은 영적 의미에 대한 그 어떤 가정마저도 “사탄의 책략”⁵⁷⁾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알레고리적 해석은 그야말로 인간 상상력의 산물로 보여진다. 인간의 생각에 의한 교묘한 착상으로는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끄집어 낼 수 없다. 성

53) *Comm. Gal.* 4:22(CO L. 236).

54) *Inst.* I.7.1, p.74(CO II, 56: non alio iure plenam apud fideles autoritatem obtinent, quam ubi statuunt e coelo fluxisse, ac si vivae ipsae Dei voces illic exaudirentur).

55) *Inst.* IV.17,25, pp.1391-1302(CO II, 1024)를 참조하라.

56) Edwards, 1968, p.112.

57) *Comm. Gal.* 4:22(CO L. 236-237).

경의 진정한 의미란 말씀의 내용에 담겨진 하나님의 활동성에 대한 표현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어떠한 인간의 상상력, 혹은 영적 해석도 “하늘의 가르침”(doctrina coelestis)⁵⁸⁾과는 일치할 수 없다. 영적 상상력, 혹은 알레고리화 작업은 오직 새로운 교의(가르침)만을 고안해 낼 따름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리베르틴파의 알레고리화 작업에 대해 공박했을 때에는 성경과 성령의 통일성에 대한 그의 교의도 포함 되어 있는 것이다.

리베르틴파에서 내린 두번째 결론에서는, 성령을 성경에 비하여는 지나칠 정도로 우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성경을 성령과는 정반대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칼빈이 비난하는 바처럼, 결국에는 “성경의 범주를 벗어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⁵⁹⁾ 리베르틴파는 성경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임을 거부하고 성령을 기독교인의 생활에 유일한 주권자로 지나칠 정도로 강조한다. 이 점에서 성경과 연관된 성령의 기능에 대해 칼빈과 리베르틴파가 그 이해의 정도에 있어서 얼마나 상이한가를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고 하겠다.

칼빈 신학에 있어서 성령의 중요성이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된 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성경은 그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 확신에 기초할 때에야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⁶⁰⁾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실성과 완전성을 부여해 주는 성령의 은사에 있는 것이다.

칼빈이 성령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가운데 한편으로 성령의 특별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상호관련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리베르

58) *Inst.* I.6.2;3, pp.71-73(CO II, 54-55).

59) *TAL*, p.223(CO VII, 174) 뿐만 아니라, 칼빈은 그의 저서 *Reply to Sadolet*(Reid, p.230)에서도 교황제신봉자들과 제세례주의자들이 성령을 지나칠 정도로 터무니없이 자랑하여 불가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고 매장시켜 버리는 경향”에 대해 공박하고 있다.

60) *Inst.* I.8.13, p.92(CO II 69: Quare tum vere demum ad salvificam Dei cognitorem scriptura satisfacet, ubi interiori Spiritus Sancti persuasione fundata fuerit eius certitudo).

론에 대한 반론」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물론, 「반론」에서 칼빈이 설명한 내용은 성령의 역할을 오용하고 있는 리베르틴파를 공격해야만 하는 특별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그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전반적인 그의 성령에 관한 교의와 일치한다.

칼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에 대해 열거하면서 성령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성령은 새로운 가르침을 창출해 내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 기초하지도 않는 이상한 주제들을” 발견하도록 감동시키거나, 또한 성경에 대한 불신을 주입시키는 사역을 행하지도 않는다.⁶¹⁾ 성령은 결코 성경과는 정반대로 거스리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또한 성경을 가감하지도 않는다.

성령은 성경을 조명하고 해석하는 결정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성령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하고 그것을 알기 쉽게하여 그 말씀의 진실성을 드러내 주도록 역사한다. 칼빈이 주장하고 있듯이, 성령의 목적은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 주는 것이다.⁶²⁾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계시를 보충하는 것도, 또한 그 계시를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계시의 진정성(眞正性)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⁶³⁾ 계시는 성경 안에서 시작하고 끝난다. 이러한 점에서 “소위 그 어떠한 계시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의해 언제나 확인되어야만 한다.”⁶⁴⁾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강요」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계시를 고안해 내거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꾸며내어 기존에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어 판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가르침을 우리들의 심령에 확증하는 것이다.⁶⁵⁾

61) TAL, p. 224(CO VII, 175).

62) TAL, p. 224(CO VII, 175-176).

63) Richard, 1974, p. 154.

64) Balke, p. 98.

65) Inst. I. 9. 1, p. 94(CO II, 70: Non ergo promissi noqis spiritus

요한복음 주석에서도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들의 “내면적 교사”(the inward Teacher)라 칭하고 “성령이 새로운 계시의 창시자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제세레파와 리베르틴파는 성령이 성경 안에 담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고상한 그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그는 특별히 언급하면서, “복음서를 제외시킨 어떠한 가르침이나 꾸며낸 이야기를 가르치는 성령은 일종의 속이는 영(靈)이지, 그리스도의 영(靈)일 수 없다.”⁶⁶⁾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칼빈은 요한복음서의 다른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재차 되풀이 언급한다:

외면적인 가르침을 경멸하며 고상한 말로써 신비스러운 계시와 영감에 대해서 떠벌이는 광신자들이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두가지를 어떻게 하나로 일치시켰는지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설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확증시킬 때까지도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환상이나 계시를 더욱 찾지 말아야 하며, 바로 우리들 곁에 있으며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에 있는(로마서 10:8)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의식을 주장하여 말씀 그 자체에 이끌리는 상태가 되도록 해야만 한다.⁶⁷⁾

리베르틴파가 성경 밖에서 계시를 찾는 까닭은, “성경은 성령의 학

officium est, novas et inauditas revelationes confingere, aut novum doctrinae genus procude, quo a recepta evangelii doctrina abducatur; sed illam ipsam, quae per evangelium commendatur, doctrinam mentibus nostris obsignare).

66) Comm. John 14: 26(CO XLVII, 335).

67) Comm. John 15: 27(CO XLVII, 354: Contra vero plerisque fanaticis sordot eterna praedicatio' dum maguifice arcanes..... Atqui videmus vt duo haec siml Christus coniungat. Tametsi igitur nulla est fide, donec mentes nostras illustras illustret Dei spiritus et corda obsignet, non tamen ex nubibus petendae sunt visiones vel oracula: sed verbum, quod prope nos est, in ore nostro et corde sensus omnes nostros sibi devinctos et in se defixos habere debet.....).

교이고, 그 곳에서는 필수적인 것과 알아서 유용한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히 알아야 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⁶⁸⁾는 사실에 전혀 무지하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단절시킨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차단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⁶⁹⁾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본래의 경의와 위엄이 주어질 때에만 성령께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⁷⁰⁾

따라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련성은 상호 상관관계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이들이 이들 나름대로의 극히 다양한 역할에 충실하려면 절대적으로 타자를 배제한 상태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러한 상관관계성으로써 “성령과 성경은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다”⁷¹⁾라고 말한 칼빈의 주장이 설명된다. 이들은 그들 자자의 상이한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로 간에 상호관계성 속에서 함께 공존한다:

일종의 상호 유대적인 결속을 통해 주께서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한데 묶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심(信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정관(靜觀)하도록 부추기시는 성령께서 그 빛을 발하실 때에야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게 될 것이고, 한편으로 우리가 성령을 그 자체의 형상, 곧

68) *Inst.* III. 21. 3, p. 924(CO II, 681 : est enim scridtura scholaspirtus sancti, in qua ut nihil praetermissum est scitu et necessarium et utile, sic nihil praetermissum est scitu et necessarium et utile, sic nihil docetur nisi quod scire conducat).

69) *TAL*, p. 224—225(CO VII, 176 : En quoy il denote, que c'est suffoquer la clarté de l'Esprit de Dieu, que de se retirer de sa parole).

70) *Inst.* I. 9. 3, p. 95(CO II, 71 : ut vim tum demnm suam proferat atque exerat ubi sua constat verbo reverentia ac dignitas).

71) *TAL*, p. 224(CO VII, 176 : il ne signifie point une chose diverse de l'Escriture). 칼빈의 사상 가운데에서는 성령이 결코 성경보다 우위일 수 없다. Cf. *Tractatus Omnes* 511 : verbo autem Spirtus nihil eum superiore loco a Scriptura diuersum significare hinc apparet.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맞이 할 수 있을 것이다.⁷²⁾

성령의 직무가 그 능력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을 때는 성령이 해석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에야 가능한 것이지,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신비스런 의미만을 전달할 때에는 전혀 그 직무를 온전하게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령은 성경의 우위성을 빼앗아가 버리기 보다는, 오히려 성경의 지위를 강화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지지하게 만들며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한다. 칼빈은 마지막으로 성경을 거부하는 리베르틴파에 대한 논박으로 그들에 대한 충고를 마무리 지으면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옹호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순수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놓으셨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어 넣으시도록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진정한 직무인 것이다.⁷³⁾

4. 결 론

이제까지 앞서 논의된 칼빈의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리베르틴파는 성경과 성령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려는 자신들의 생각을 충족시키고자 성

72) *Inst.* I. 9. 3, p. 93(CO II, 71 : Munto enim quodam nexu Dominus verbi spiritusque sui certitudinem inter se copulavit ; ut solida verbi religio animis nostris insidat, ubi affvlget spirtus qui nos illic Dei faciem coutemplari faciat ; ut vicissim nullo hallucinationis timore spiritum amplexemur, ubi illum in sua imagine, hoc est in verbo, recognoscimus).

73) *TAL*, p. 225(CO VII, 176 : Tenons nous, dis ie, à la pure et simple parole de Dieu, où il nous a pleinement revelé sa volenté : et prions le que par son saint Esprit il la vueille imprimeren noz cuerus : comme c'est son vray office).

경의 여러 구절들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다. 그들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없애버릴 정도로 성경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성령을 강조한다. 이에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靈)일 수 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영’이기에 따라서 우리들도 그와 더불어 ‘영적인 존재들’(spirits)이어야 하며 우리들의 삶도 ‘영’(적인 삶 그 자체)이 [가]되어야 한다.”⁷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들을 “영”적 존재로 분류해 버리는 리베르틴파를 힐난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오용하고 있는 리베르틴파에 대해 칼빈은 요한복음 6:63에서 언급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술하는 가운데 강하게 항변한다. 칼빈의 설명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동등하게 말씀하고 제실 때에 그가 의미한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이라는 말이지 그것이 영 그 자체라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까닭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세속적인 지각으로써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찾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다.”⁷⁵⁾ 따라서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으로 지칭할 때에 그가 의미한 바는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의 정수”⁷⁶⁾(the soul of the law)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리베르틴파가 너무나도 자주 영이라는 말을 오용하는데 대해 공박하면서도 단순히 그들이 신봉하는 성령에 대한 그릇된 교의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또한, 리베르틴파가 경건함 내지는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칭 경건성 혹은 영성(靈性)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칼빈이 관련시키고 있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리베르틴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것처럼 감각적인 이해에다 복속시켜 버리는 변덕쟁이 무리들”⁷⁷⁾

74) TAL, p. 227(CO VII, 177 : et que la parole d Dieu n'est que esprit, et que Iesus Christ semblablement est esprit, et qu'il nous faut estre espritz avec luy, et que nostre vie doit estre esprit).

75) Comm. John 6 : 63(CO XLVII, 160)

76) TAL, p. 227(CO VII, 177).

77) TAL, p. 227(CO VIII, 177)

은 추잡스럽고도 변덕스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분명 틀림없는 사실일 뿐 아니라 이러한 신령한 그룹들과 교제코자 하는 수많은 우매한 사람들은 리베르틴파의 교상한 언변과 자칭 신성함에 결과적으로 먹이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칼빈은 이러한 리베르틴파 행동양식의 윤리적 측면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제9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칼빈이 지나치게 영이라는 말을 오용하고 있는 리베르틴파에 대해 논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을 자연스럽게 다음 장인 제5장의 주제로 이끌고 있다. 비록 칼빈이 “이러한 광신자들은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인가를 마음 속에 품고 있다”⁷⁸⁾고 언급하고 있지만 리베르틴파가 도달한 결론은 한 영(one spirit)이라는 그들의 독특한 범신론적 교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리베르틴파의 범신론적 교의에 따르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실제로 이러한 한 영(one spirit)에 속하며 그것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리베르틴파가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포함시키는데까지도 “영”이라는 말을 적용한 것이 틀림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추론인 듯 싶다. <계속>

78) TAL, p. 226(CO VII, 177).